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 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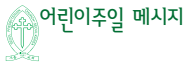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어린이주일 메시지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하루는 예수님께서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린이들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낭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그저 언짢아하신 정도가 아니라 분노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린이들은 다른 어떤 이들보다 중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만약 높고 유명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어린이들도 분명히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고, 오히려 어린이들이 거둬나고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청년 이하의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서 어린이 교회 학교가 폐지되는 교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 시급한 사역은 어린이 사역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울교회는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투자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현재 어린이 교회학교를 맡고 계신 교역자님들이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구분혜 전도사님, 양세라 목사님, 고수는 전도사님, 이제 김안성 목사님의 후임으로 새로 오실 교역자님, 이진광 전도사님, 그리고 천세종 목사님까지, 실로 드림팀(Dream Team)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모든 교역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지금까지 한 것보다 10배는 더 다음세대 사역을 위해 애를 쓸 것을 함께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울교회가 우리교회 다음세대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다음세대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세계교회의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 박노철



제14대 장로후보선출을 위한 특별제직회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제14대 장로후보 20명 선출-

우리교회 제14대 장로후보 선출을 위한 특별제직회가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열린다. 서울교회 제직(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협력장로, 협동집사, 협동권사, 서리집사)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의 뜻에 합당한 후보가 선출되도록 협력하기 바란다. 사장으로 후보는 집사와 권사를 대상으로 하되 2014년 임직된 자들과 2015년 은퇴 예정인 자들은 교회 규정상 제외된다. 장로후보 20명 명단은 5월 10일자 순례자에 간지로 게재될 예정이며, 5월 17일 공동의회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장로 10명을 선출하게 된다. 성도들의 깊은 기도로 준비되어 은혜 중에 이번 선거가 진행되도록 기도한다.

제직들은 오늘 투표권 수령토록

-10:00 ~ 16:00까지 2층 로비에서-

오늘 찬양예배 직후 개최되는 제14대장로 후보 선출을 위한 제직회에 참석할 제직들은 투표권 수령 시 2층 로비에서 제직자격 확인과 함께 투표권을 꼭 수령하기 바란다. (대리수령은 불가함) 이에 앞서 모든 제직들은 10:00~16:00까지 투표권 수령 시 배포되는 장로 후보사진명단을 수령하여 제직회 참석전까지 적합한 분을 미리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기표는 각 제직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10명만하게 되고 득표순에 따라 20명을 공동의회에 추천하게 된다.

제47회 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공개세미나

주제 : 한국장로교회 한교단 다체제와 한국교회연합 5월 18일 (월) 오후2시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 이종윤원로목사)은 최근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발의, 추진하고 있는 장로교 한교단 다체제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분열된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단초를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로교 한교단 다체제와 한국교회 연합]이라는 주제로 47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1부 경건회로 시작하여 2부 세미나에서는 이종윤 원로목사의 인도로 제1강 “한국장로교회의 한교단 다체제의 허와 실”을 주제로 발제 박경수 박사(장신대 역사신학 교수), 응답 이상규 박사(고신대 역사신학 교수)로 진행되며 제2강 “한국장로교회의 한교단 다체제가 한국교회연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제 김정우 박사(총신대 신대원 구약학 교수), 응답 최갑중 박사(백석대학교 총장)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 Panel 토의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 한국 장로교회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한다.



선교회 연합 야외행사

5월 5일(화) 오전9시~오후4시, 베델하우스

우리교회 전도위원회(위원장 최광성 장로) 주관으로 선교회 연합 야외행사가 5월 5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베델하우스(남양주시 삼패동 604-3)에서 진행된다. 참석대상은 빌립, 안드레, 베드로, 바울, 엘리야, 모세, 이삭 선교회원 및 회원 가족들과 당회원이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살림권사회 점심 대접

아버이날을 맞아 제1,2권사회가 살림권사회원과 70세 이상 되는 교회 어르신들께 정성어린 점심을 대접한다.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오는 수요일 1부 예배 후 만나홀로 가시면 된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67)

(문 167)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죽는 즉시 낙원에 갈 수가 있었습니까?

(답) 누가복음 23:43에는 주님 옆에서 다른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은 회개한 강도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실제로 이 일은 예수님이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월요일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자신이 주일까지 낙원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회개한 강도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약속대로 죽으신 금요일에 낙원에 가셨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날까지 주님은 천국을 의미하는 낙원에 들어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죽은 후 천사들에 의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하신 것처럼 (눅16:19-31)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까지 구원 받은 영혼이 기다렸던 곳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한 낙원이 아브라함의 품과 같은 곳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아직 천국에 올라가지 않은 영혼들이 즉 믿음 안에서 죽은 신자들이 같보리에 세워진 십자가의 피 값이 지불되기까지 하늘에 있는 영광스런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들어갈 수 없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회개한 강도가 금요일 오후 각각 죽은 후 그들 영혼은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시고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신 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나사로 그리고 회개한 강도가 있는 낙원에서 그들을 데리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 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엡4:8-10).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죽어서 구원을 기다리던 무리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처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 이후 성경은 낙원을 삼층천(고후 12:1-4) 또는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낙원(계 2:7)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사이에는 “땅속에”(마12:40) 계셨는데 누가는 그 곳을 낙원으로 불렀습니다 (눅23:43). 구약에서는 ‘스올’(시16:10), 신약에서는 ‘하데스’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어(히 1:3) 원수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도가 죽으면 몸을 떠나는 즉시 주님과 함께 거하게(고후 5:8) 됩니다. (다음 주 계속)



교구별 특별찬양 - 2,9,11,15교구

찬양은 믿음의 고백

최양진 장로 (9교구장)

5월의 신록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서울교회의 자랑인 교구찬양대회가 벌써 10회를 맞았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2,9,11,15교구가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6월 7일 주일 찬양예배 때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황광 목사님의 지도 아래, 지휘 신모란 집사와 박승기 집사님의 반주로 찬송가 178장 “주 예수 믿는 자여”와 복음서가 “사랑하는 자들아”를 찬양합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2,9,11,15교구 교구장님, 부교구장님과 간사님들이 모임을 갖고 기도로 준비하며 의견을 모으고, 결정된 사항을 각 교구 다락방들이 서로 공유해왔습니다.

이미 악보를 배부하고 은혜로운 가사를 암송하며 자율적으로 교구별 모임과 연습을 먼저 하고 5월 17일부터 매주일 오후 연합으로 4번 연습을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로 몸된 교회의 지체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서로가 합심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하여 찬양의 능력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에 흘러넘치게 합니다. 2,9,11,15교구의 교구 연합찬양으로,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한가족이 되어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천국시민양성 - 경로대학

만학의 열정



강진문 권사 (7교구)

3월 초순 어느날, 예쁘고 옛편 중국 아가씨 둘이서 동대문 전통시장을 문더군요. 그래서 나는 얼른 수첩을 꺼내서 을지로 4가에서 청계천 4가, 종로 5가를 차례대로 약도를 그려서, 손짓으로 방향을 가르쳐 줬더니, 금세 알아들었는지 “쎬쎬!” 라는 인사를 하며 가는 것을 보며, 중국말로 가르쳐 줬으면 하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중국 관광객한테만이라도 길 정도는 가볍게 안내할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던중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경로대학 중국어반으로 인도해주셨습니다.

막상, 중국어반의 첫 시간을 임하고 나니, 제 나이에 외국어를 할수 있을까? 라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두렵기까지 했었는데, 이러한 저의 고민을 하나님께서는 양연평 집사님과 최춘숙 집사님 두 분을 교사로 보내주시어 일순간에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살롬경로대학 중국어반 교수들은 70대중반 ~ 80대 초반의 연령이지만 배움의 열정은 나이를 초월한 의기양양하여 이 세상 어떤 학생들 못지 않았습니다.

양연평 집사님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가르쳐 주심은 물론, 학습교재 준비에도 불편함이 없이 배려해주시고, 특히 중국 전통차를 손수 끓여 준비하시는 등 최춘숙 집사님과 함께 헌신하시는 모습에 강의시간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배움터를 떠난지 수십년이 된 저희들이 이해를 더디하거나, 진도를 따라오지 못할 때마다 답답해 하지 않고 웃음과 격려로 손을 잡아주시는 두분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은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어린 학생들처럼 가감 없이 기뻐하며 배우노라면 언젠가는 잘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철주야 살롬경로대학을 위하여 말씀을 들



고 서시는 서명철 목사님, 또한, 경로대학 섬김에 앞장서신 오치열 장로님과 많은 교사님들께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과 함께 강건하시기 기원합니다.



경로대학 야외예배



어려서부터 주님 안에서

이재경 집사 (유년부 교사)

서울교회 유년부 친구들 일주일동안도 잘 지냈지?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경 선생님이란다.

유년부에 새로운 학년과 선생님, 친구들을 만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구나.

선생님도 유년부에서 봉사한 지 7년째인데 늘 처음 하는 사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맞이하고 있다. 너희들이 유년부 예배시간에 고수는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정성스런 찬양대의 모습을 볼 때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성경말씀을 생각하며 선생님은 자주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선생님은 결혼한 후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아는 너희들의 모습이 부럽기도 하단다. 세상의 책은 배움

에 따라 지식을 향상시켜 주지만 바른 사람을 만들 수는 없단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보고 배울수록 마음과 생각이 바르며 생활과 행동이 바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 공헌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성경을 배워야 한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기록되었듯이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매주 일 9시 유년부 예배와 여름과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길 기도한다.



등정

■ 이중운 원로목사는 5월4일(월) WRF(세계개혁주의연맹) 종교개혁500주년기념행사를 갖고 Skype Conference를 대륙간 대표들과 갖는다. 웨스트민스터 신대원총장 내한 면담한다.

■ 사임 : 김안성 목사(초등부 지도)는 개인사정으로 4월 26일부로 사임하였다.

■ 개인전 : 15 교구 전광영 집사 베니스비엔날레 초대전시 베니스 플라조그리마니 미술관 5월 9일~11월 22일

■ 주일식당봉사 : 리브가 전도회(5.3) 한나 전도회(5.10)

■ 금주의 식사 제공 : 짜장면
홍승전 집사 황정임 권사 가족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호산나대학 졸업생, 장학금 기부 이어져

2회 졸업생 최지훈 군, 첫 월급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액 기부



호산나대학을 최지훈(2011년, 2회) 졸업생이 자신의 첫 월급 전액을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기부해 취업생 장학금 기부 릴레이가 이어져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2008년 호산나대학을 입학한 최지훈 군은 2010년부터 아가페타운에 입주한 (주)오존에 입사하여 4년 가까이 첫솔을 만드는 일을 해왔다. 올해 초 회사가 당진으로 이전해 직장을 잃게 된 지훈군은 본교의 재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에 위치한 한인한이라는 첫솔 제조업체에 2015년 3월 재취업에 성공했다.

취업 초기에는 직장동료들과 적응하는데 어려움

이 있었지만 학교에서 지훈 군이 근무하는 회사에 방문하여 꾸준한 사후지도로 해 지금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직장내에서도 맡은 바 일을 책임감 있게 잘 수행하는 직원으로 칭찬이 자자하다.

최지훈 군의 어머니께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지훈군이 받은 첫 월급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하였다. "학교에서 늘 잊지 않고 졸업생들에게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게 재취업을 시켜주고 사후관리도 해주니 호산나대학을 졸업한 부모로서 너무나도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호산나대학은 졸업생들이 기부하는 장학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며, 최지훈군이 앞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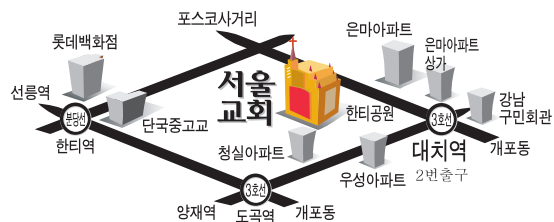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제14대 장로선출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2.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교회 모든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도록
3. 교구별 특별 찬양이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